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09. Vol. 20. No. 2. pp. 91~111.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 : 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한 비행이론들의 검증*

이성식** · 전신현***

초 록

이 연구는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를 주요 청소년비행이론들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긴장이론에 따르면 낮은 학업성적은 청소년비행에 직접적으로 혹은 일상긴장이나 부정적 감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통제이론과 일반이론에 따르면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과는 허위관계에 있다고 본다. 한편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에서는 낮은 학업성적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주며, 또한 낙인이론에 따르면 그 영향력이 부정적 낙인과정에 의해 매개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낮은 학업성적은 청소년비행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며 비행친구 혹은 부정적 낙인을 통해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유대가 약하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은 학업성적이 낮고 그러한 청소년들이 비행친구와 사귀거나 부정적 낙인을 경험함으로 해서 비행을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는 사회통제이론이나 일반이론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과 낙인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학업성적, 청소년비행, 패널자료

* 이 논문은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부교수
*** 한국디지털대학교 청소년학과 부교수

Ⅰ. 서 론

청소년비행과 관련하여 여러 원인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은 그 중 주목되어 온 주요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학벌중심의 사회에서 대학진학은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 왔고, 학업성적은 학생들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다. 그러한 이유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모든 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낙오자로 평가받기 쉬우며, 이는 청소년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이 청소년비행의 주요 설명요인이 되며(김준호, 노성호, 1993), 학생들이 경험하는 공부압력은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다(김준호, 1990).

과연 학업성적은 청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이 되는가?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청소년비행의 주요 이론들은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를 다각도로 상이하게 접근한다. 그것이 주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학업성적은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가지며, 또 다른 한편으로 학업성적과 비행은 아무 연관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 연구는 기존 비행이론들을 기초로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여러 가설들을 경험연구를 통해 살펴보려고 하며, 과연 어떠한 이론이 지지되는지를 다루려고 한다.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간의 전후 인과관계 및 그 매개과정 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한 시점의 조사연구보다는 종단적 패널자료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그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허위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 연구는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를 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해 여러 이론의 입장에서 다루어 그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며, 그 관계가 허위관계인지, 그렇지 않고 관계가 있다면 그 영향력은 직접적인지, 간접적이라면 그 이유와 매개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주요 이론들 입장

학업성적은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되는가? 아마도 그 관계를 가장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이론으로는 긴장이론을 꼽을 수 있다. 긴장이론에서는 Merton의 논의에 기반하여 하층 청소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성공목표의 실패에서 오는 구조적 긴장과 좌절이 청소년비행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계층과 비행의 관련성이 적게 되자, 이후 Agnew(1985a, 1992)와 같은 긴장이론가들은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층의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긴장을 비행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러한 점에서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모와의 갈등이라든지,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다툼이나 소외, 각종 생활사건 등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학업의 부진이나 낮은 학교성적도 청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에서는 그러한 일상긴장은 화, 절망감, 우울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비행을 일으킨다고 보았는데, 이처럼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긴장이론은 낮은 학업성적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비행의 주요 동기가 되어 그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에서는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를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Hirschi는 누가 왜 비행을 저지르는가의 물음보다는 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가의 물음에 답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누구나 비행동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나 학교와 유대를 맺고 있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실제로 사회통제이론에서는 부모나 주위 사람들과의 애착, 학교공부나 앞으로의 직업이나 교육에 대한 관여나 참여, 그리고 도덕적 신념이 비행여부를 설명하는 사회유대의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도 애착과 관여는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이라 할 수 있어, 따라서 부모와 강한 애정적 관계를 갖거나 학업에 열정과 관여를 갖는 아이들의 비행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비행을 통제하지 못하고 쉽게 저지른다고 보았다. 그동안 일부 사회통제이론가들은 학업성적이 관여의 한 요소로서 비행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았다(Krohn and Massey, 1980).

관여란 하고 있는 일이나 목표에 얼마나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투자를 하고 열정을 갖는가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Hirschi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교육이나 직업수준에 대한 열망과 기대로, 또한 많은 학자들은 학업과 성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관여의 지표로 다루었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러한 측정도구들이외에 실제 학업성적을 관여의 요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입장에서 보면 학업성적이 높은 아이들은 학업에 관여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러한 아이들은 비행의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Hirschi가 관여를 교육과 직업에 대한 열망과 기대, 그리고 학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가에 주목했다고 본다면, 실제로 학업성적이 낮더라도 미래를 꿈꾸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관여도가 높은 아이들이 비행 가능성이 낮은 것이어서, 따라서 열망을 갖고 학교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실제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사회통제이론에서는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를 언뜻 언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관계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학업관여도가 높은 아이들이 성적도 좋고 비행도 안하는 것이지 학업성적과 비행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허위관계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Felson and Staff, 2006).

또한 보다 근래에 제시된 대표적 비행이론으로서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일반이론도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가 허위관계라고 보는 대표적 입장에 있다. 그들은 비행이나 모든 범죄가 순간욕구에 의해 우발적이고도 충동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면서, 결국 순간만족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개인의 안정적 성향인 자기통제력이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기통제력은 어릴 때 부모의 양육방법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는데, 한번 자기통제력이 형성되면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지속적 성향이 된다고 봄으로써, 결국 어려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고, 그 때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기의 비행의 중요하고도 유일한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기존에 청소년비행의 원인이라고 언급되었던 많은 요인들, 예컨대 부모와의 애착이나 관여, 일상긴장들, 그리고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이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이 사회유대가 약하고 일상긴장을 경험하며, 비행친구와 어울리고, 또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어서,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의 유일한 원인이고, 사회유대나 그 밖의 요인들과 비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허위관계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 보면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도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이 학업성적도 낮고, 또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이 비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은 Sutherland(1947)에 의해 비롯되고 Akers (1977)에 의해서 발전된 이론으로 청소년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행가치나 태도, 동기를 학습하게 됨으로써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는데, 즉 비행친구와 사귀는 아이들은 비행과 법위반에 우호적이 되고, 친비행적 가치와 태도를 학습함으로써 비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학업성적은 비행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후 통합론적 시각에서 보면 부모와 관계가 안 좋거나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비행친구와 어울릴 가능성이 높고, 그럼으로써 비행을 저지른다는 주장을 한다(Johnson, 1979; Matsueda, 1982; Massey and Krohn, 1986). 즉 이 입장에서 보면 낮은 학업성적은 비행친구와 어울리게 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비행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주요 이론인 낙인이론을 통해서도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낙인이론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소한 문제행동이나 혹은 비행으로 공식기관에서 처벌을 받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낙인을 찍히게 될 때 그러한 낙인이 차후 비행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Paternoster and Iovanni, 1989). 낙인은 좁은 의미에서 보면 비행으로 공식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은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낙인에 주목할 수 있지만, 보다 포괄적으로 보면 비공식적인 낙인도 포함된다. 즉 비행이외에 개인의 특성이나 여러 행동에 주어지는 주위 사람들에 의한 낙인의 효과에 주목할 수 있는데, 주위로부터 부정적 낙인이 있을 경우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Matsueda, 1992; 이성식, 2007). 그런데 학교에서는 비공식 낙인과정을 많이 관찰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능력별 학습체계로, 그러한 체계를 운영하다 보면 학업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 혹은 문제아로 낙인을 찍히게 된다는 것이다(Polk and Schafer, 1972). 이처럼 낙인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학업성적이 부진한 아이들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 문제아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높음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기 쉽다고 볼 수 있다(Menard and Morse, 1984; 김준호, 노

성호, 1993). 비행을 저지른 아이가 학교성적도 낮은 경우 더 낙인이 찍히겠지만,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학업성적이 낮은 것만으로도 낙인이 찍힐 수가 있게 되고, 낙인이 찍힌 아이들은 사회의 부적응으로 비행을 더 저지른다고 볼 수 있다.

2. 기존의 주요 경험연구들

기존의 경험연구들을 보면 학업성적은 청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Polk and Schafer, 1972; Offord et al., 1978; Krohn and Massey, 1980; LaGrange and White, 1985). 국내연구에서도 대표적으로 1993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연구(김준호, 노성호, 1993)를 보면 학업성적은 여러 학교관련 요인들 중에서 거의 모든 형태의 비행에 직접적이고도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주로 긴장이론이나 사회통제이론에서 학업성적의 영향력을 다루었다. 즉 낮은 학업성적은 긴장을 유발하는 비행의 동기요인으로, 그리고 높은 학업성적은 비행을 통제하는 사회유대의 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에서 두 이론은 동전의 앞뒷면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은 주로 긴장이론의 맥락에서 다뤄진다고 볼 수 있으며(Felson and Staff, 2006), 사회통제이론의 검증에서도 다뤄져 왔지만 기존 연구들을 자세히 검토해 볼 때 그것이 사회유대의 관여의 직접적 지표로 사용되지는 않았고, 그것과 구분하여 다만 학업관여, 학교에 대한 애착, 공부시간과 함께 학교관련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될 뿐이었다(Wiatrowski et al., 1981; Agnew, 1985b; LaGrange and White, 1985).[1)]

일반이론에 따르면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의 원인이 되고,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는 허위관계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일반이론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Simon과 동료들(1998)은 낮은 자기통제력의 잠재적 성향보다는 이후 학업관여나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생애과정적 환경요소가 중요함을 제시했고, Wright와 동료들의 연구(1999)에서도 낮은 자기통제력이 유일한 원인이

1) 김준호와 이성식(1996)은 학업성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룸에 있어 그것이긴장이론과 사회통제이론 중 어떤 이론과 연관되는지를 다루기 위해 낮은 학업성적이 구조적 긴장(앞으로의 성공에 대한 기회제약)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부모와의 유대를 약화시켜 비행으로 이어지는지를 다루기도 했다.

된다는 사회선택가설보다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이 학업성적이 낮은 등의 사회유대가 낮고 또는 비행친구와 사귀게 됨으로 해서 비행을 저지른다는 사회인과가설이 더 우위에 있음을 제시했다. 보다 최근의 McGloin과 동료들의 연구(2004)에서도 낮은 자기통제력은 학업성적을 통해 간접적 영향력을 가질 뿐이며, 따라서 그것이 유일한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일반이론의 주장이 지지되지 못함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때 낮은 자기통제력은 학업성적의 선행요인이 되는 것이지, 학업성적이 비행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일반이론의 논의는 대체로 부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Felson과 Staff(2006)의 연구결과에서는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가 허위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사회통제이론에 근거해서 사회유대요인을(부모와의 애착과 학교관여), 그리고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자기통제력을 선행통제변인으로 고려할 경우 사회유대요인이나 자기통제력이 비행의 직접적 원인이 되며, 학업성적과 비행은 허위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는데, 사회유대요인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기통제력은 유의미했고, 학업성적과 비행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일반이론이 우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결과는 어떤 점에서 보면 일반이론보다는 낙인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자기통제력의 측정에서 그것을 응답자의 응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평가에 근거하여 측정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연구결과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이 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평가하기에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 즉 선생님으로부터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힌 아이들이 비행을 더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한 것과 같다. 어쨌든 Felson과 Staff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의 영향력이 낮게 제시되었다.

실제로 이성식의 낙인이론의 검증에 대한 연구(2007)에서는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부모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문제아로 낙인찍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결과로 비행을 저지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고, 박영신과 동료들의 최근 연구(2007)에서는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처벌경험이 많음으로 인해 그것이 비행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학업성적이 낮을 경우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비공식 낙인을 경험함으로 인해 비행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한편 McGloin과 동료들의 연구(2004)에서는 학업성적이 직접적으로도 비행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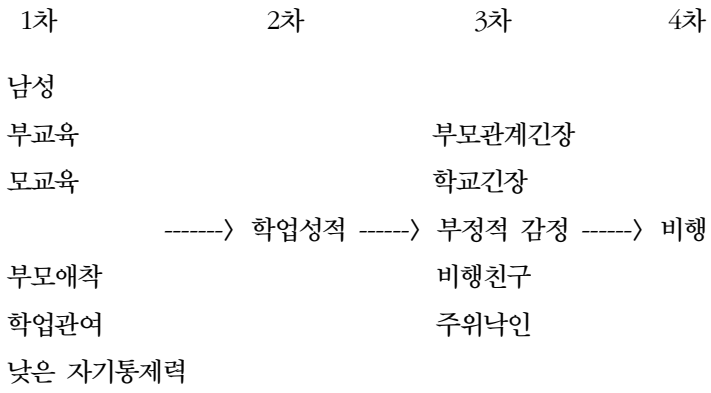
을 미치지만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비행친구와 어울림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비행을 저지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해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의 논의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Massey와 Krohn (1986)의 청소년 흡연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학업성적과 학업관여는 직접적으로도 흡연에 영향을 미쳤지만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학업성적의 직접적인 영향력도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한 점에서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만이 지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비행친구와 어울림으로써 비행을 저지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2)]

Ⅲ. 연구가설과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2004년도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에서부터 2007년도 4차에 이르는 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이론의 관점에서 이론들을 검증하려는 것에 주목한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인 학업성적은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2차 시점에서의 자료로 사용하기로 하며, 종속변인인 청소년비행은 4차 시점의 자료를, 그리고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간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들은 3차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아울러 사회배경요인들 및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간의 관계를 허위관계로 작용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되는 요인들은 1차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2) 한편 국내연구로 김희화(2001)는 초기비행의 경우는 학업성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지속적인 비행의 경우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림 1]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이론별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상정해 보기로 한다. 우선 긴장이론에 근거해 본다면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청소년비행을 저지르기 쉬우며, 좀 더 확대해서 논의해 본다면 학업성적이 낮을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긴장과 또는 학교에서의 적응에 있어서 긴장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비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일반긴장이론의 논의에서처럼 그것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여 비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학업성적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매개로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비행청소년과 어울리고 그러한 이유로 비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아울러 낙인이론에 근거해 본다면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정적 낙인을 경험함으로 인해 그것을 매개로 청소년비행을 저지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통제이론에 근거한다면 사회유대요인들(부모와의 애착, 학교공부에의 관여)을 고려할 경우, 그리고 일반이론에 근거한다면 자기통제력을 고려할 경우,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의 관계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을 것이며, 사회통제이론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학교공부에의 관여가, 일반이론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을 설명하는 주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위의 이론들의 입장을 검증하여 어떠한 이론이 지지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기존의 연

구결과에 의존해 볼 때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며 사회유대요인이나 자기통제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허위관계가 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예측해 본다. 그 대신 부모와의 애착이 적거나 학교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이 학업성적이 낮을 것이며,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은 일상긴장이나 부정적 감정, 혹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나 주위 사람들에 의한 부정적 낙인을 경험함으로 인해 청소년비행을 더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2. 연구방법 및 측정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중학생 2학년 대상의 2004년도 1차 자료와 그 이후 2차부터, 3차, 그리고 그들이 고등학생 2학년이 된 4차까지의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1차 자료는 다단계 층화집락표집에 의해 3,499명을 수집하였으며, 이들 중 91명은 해외유학이나 이민, 연락두절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나머지 3,358명중 조사에 실패한 237명을 제외한 3,121명이 최종적으로 4차 조사에 조사되었다(이경상 외, 2007).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으로 학업성적은 통상 시험성적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지난 학기의 학급석차를 질문하여 총 학급인원으로 나눈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선행변인으로 사회유대변인인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해 갖는 애착은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 하는 편이다” 등의 다섯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토록 하였다(alpha=.859). 한편 학교공부에의 관여는 통상 Hirschi는 교육과 직업의 열망수준으로 측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통해 측정하기로 했는데, 국어를 포함한 여덟 과목 각각에 대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를 통해 알아보았고, 각 질문에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788).

또 다른 선행변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충동성, 순간만족성, 위험추구성 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Grasmick et al., 1993), “나는 위험한 행동을 즐기는 편이다” 등의 다섯 문항을 사용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했다(alpha=.650).

본 연구의 매개요인으로서 부모와의 긴장은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

를 받는다" 등 네 문항을(alpha=.872), 학교에서의 긴장은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네 문항을 사용하였고(alpha=.841), 부정적 감정은 화, 우울, 불안과 관련된 문항으로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등의 일곱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각 5점 척도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777).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의 대표적 요인인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친한 친구들 중 학교에서 근신,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친구가 몇 명이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주위 낙인은 Matsueda(1992)의 논의에 따라 주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자아의 평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주위 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의 하나의 문항을 질문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종속변수로 다룰 청소년비행은 4차년도의 자료에서 지위비행에서부터 폭력에 이르는 비행행위와 아울러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사이버비행을 추가하여 총 열세개의 항목을 사용하였고 그 경험여부를 각각 알아보고 최종적으로는 합산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성과 부모님의 교육수준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성은 남녀의 항목에,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은 각각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의 다섯 항목을 통해 알아보았다.

Ⅳ.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 앞서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다. 학업성적은 1-100범위의 백분율 범위에서 평균이 41.372이었다. 선행요인으로 부모와의 애착은 5-25범위에서 평균이 16.337로 다소 높았고, 학교공부에의 관여는 8-40범위에서 평균이 26.037로 중간을 약간 웃도는 점수를 보였다. 낮은 자기통제력의 경우 5-25범위에서 평균이 13.169로 대체로 응답자들은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다룰 일상긴장요인으로 부모와의 긴장은 4-20범위에서 평균이 10.822로 다소 낮게 나타났고, 학교에서의 긴장은 4-20범위에서 평균이 12.792로 상대적으로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긴장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감정은 7-35범위에서 18.207로 그 점수가 다소 낮았다. 비

행친구의 수는 평균이 .137로 매우 낮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낙인을 받고 있다는 인식도 1-5범위에서 평균이 1.733으로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비행의 평균은 1.102로 낮게 제시되고 있다.

<표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범위
학업성적	41.372	26.895	1-100
부모애착	16.337	4.069	5-25
학업관여	26.037	5.297	8-40
낮은자기통제	13.169	3.467	5-25
부모긴장	10.822	3.296	4-20
학교긴장	12.792	3.449	4-20
부정적 감정	18.207	4.973	7-35
비행친구	.317	1.172	0-20
주위낙인	1.733	.792	1-5
비행	1.102	1.272	0-13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학업성적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다. 첫 번째 모델 결과는 사회배경변인들의 설명력을 제시하는데 R제곱이 .038이었고 남성이 더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모델의 결과에서처럼 사회배경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학업성적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p〈.001수준에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냈고, R제곱은 .053으로 늘어나 학업성적이 설명하는 변량(R제곱=.017)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제이론의 논의에서처럼 사회유대변인을 통제할 경우 과연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는 허위관계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 부모에의 애착과 학교공부관여를 선행통제변인으로 고려하여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2〉의 세 번째 모델의 결과에서와 같다. 즉 사회유대변인들을 통제해도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는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통제이론의 논의가 지지되지 못하는 결

과를 제시했다. 여기서 부모에의 애착은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였고, 학업공부관여는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이론의 논의를 검증하기 위해 낮은 자기통제력을 통제한 결과에서는, <표 2>의 네 번째 모델의 결과에서처럼 학업성적은 여전히 비행에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 그 관계가 허위관계가 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도 p<.001수준에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사회배경변인 및 사회유대변인과 낮은 자기통제력을 모두 통제한 다섯 번째 모델의 결과에서도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비행을 p<.001수준에서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낮은 자기통제력도 p<.001수준에서 유의미했으나 사회유대변인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 학업성적의 청소년비행의 영향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인									
	비행(1)		비행(2)		비행(3)		비행(4)		비행(5)	
독립변인	b	β	b	β	b	β	b	β	b	β
남성	.495***	.195	.477***	.188	.475***	.187	.467***	.184	.466**	.188
부교육	.004	.003	.031	.021	.039	.026	.039	.026	.042	.028
모교육	-.055	-.033	-.017	-.010	-.012	-.007	-.031	-.018	-.031	-.019
부모애착					-.010	-.032			-.005	-.015
학업관여					-.012*	-.050			-.001	-.004
낮은자기통제							.071***	.192	.070***	.189
낮은학업성적			.006***	.128	.005***	.105	.004***	.091	.004***	.088
R제곱	.038		.053		.056		.088		.088	
F	40.416***		37.466***		26.965***		30.798***		36.973***	

* p<.05; ** p<.01; *** p<.001

본 연구에서 다루는 매개변인을 포함한 <표 3>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우선 학업성적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그 유의미 정도가 p<.05수준으로 줄어들어 비록 그 영향력이 직접적이기도 하지만 매개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매개변인들 중에는 긴장이론의 세 변인들, 즉 부모와의 긴장, 학교에서의 긴장, 부정적 감정의 비행에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주위의 낙인이 모두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비행친구와 사귀거나 혹은 주위로부터 낙인을 찍힘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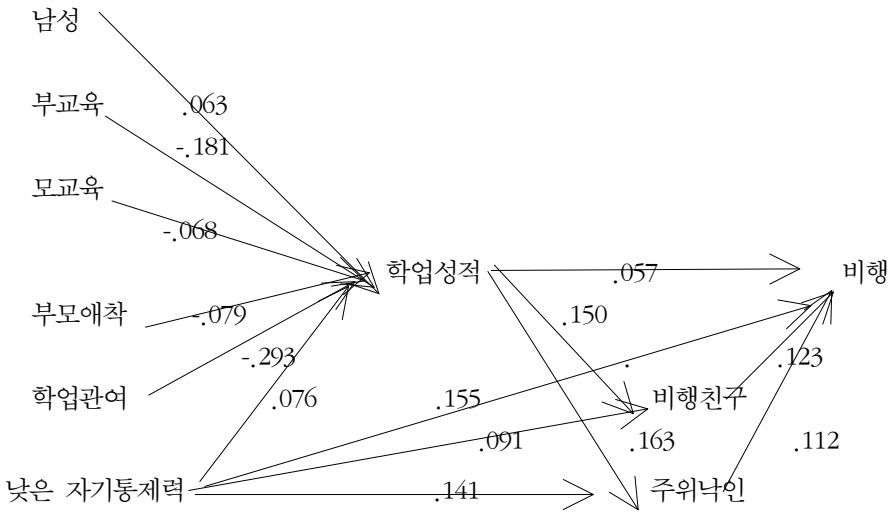
<표 3> 학업성적과 매개변인들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행 b	β
남성	.466***	.183
부교육	.017	.011
모교육	-.018	-.011
부모애착	.0001	.000
학업관여	.0001	.000
낮은 자기통제	.058***	.155
낮은 학업성적	.003*	.057
부모긴장	.010	.025
학교긴장	.008	.023
부정적감정	.001	.004
비행친구	.140***	.123
주위낙인	.182***	.112
R제곱	.124	
F	30.798	

* p<.05; ** p<.01; *** p<.001

보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아래 경로분석의 그림에서 제시되는데, 남성,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아이들, 그리고 부모에의 애착과 학교공부에 관여가 낮은 아이들,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이 학업성적이 낮고 그러한 아이들은 직접적으로도 비행의 가능성이 높지만 비행친구와 사귀거나 혹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문제아라는 낙인을 찍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부모애착과 학업관여의 비행에의 영향력

은 간접적이며, 한편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은 직접적으로도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학업성적이나 비행친구와의 접촉, 그리고 주위의 낙인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비행을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자기통제력만이 유일한 원인이라는 일반이론을 지지하지는 못하는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그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Ⅴ. 결 론

이 연구는 학업성적이 청소년비행에 주요 설명요인이 되는지를 살펴봄에 있어 주요 청소년비행의 이론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설들을 검증하려고 했었다. 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해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성적이 청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즉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은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주요 이론들의 검증결과를 보면 사회통제이론이나 일반이론에서는 사회유대요

인들 혹은 자기통제력을 통제할 경우 학업성적과 비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허위관계가 된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결과는 그러한 요인들을 통제해도 학업성적은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통제이론과 일반이론은 지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학업성적이 어떠한 이유와 과정을 통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긴장이론,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 그리고 낙인이론에 근거하여 매개요인들로 부모와의 긴장, 학교에서의 긴장, 부정적 감정, 비행친구와의 접촉, 주위의 낙인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비행친구와 사귀게 되고, 또는 주위 사람들의 낙인으로 비행을 더 저지르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해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과 낙인이론이 지지되었음을 제시했다.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나 학교에서 일상긴장을 겪고 또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러한 매개요인이 비행의 원인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긴장이론의 주장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러한 긴장요인들은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요인들을 통해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학업성적의 비행에의 영향력이 비행친구나 주위 낙인에 의해서 간접적이기도 하지만 그 영향력이 직접적이기도 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렇지만 그 직접적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과 낙인이론의 다른 주요 변인들을 추가할 경우(예를 들어 비행태도나 비행자로서의 자아) 그 영향이 매개되어 간접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볼 때 낮은 학업성적은 청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업성적이 부진한 청소년들을 위해 학업성적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청소년비행 대책방안의 하나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부모와의 관계에 애착이 낮고 학교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 학업이 부진하다는 점에서 부모의 관심과 또한 학교차원에서도 학생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개인차원의 지도 노력이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낮고 저소득층인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비행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문제아라는 낙인을 받음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보면 학업이 부진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목표를 포기하고 비행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며, 또한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는 사회의 폐해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업 및 대학진학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듯이 청소년비행의 경우도 청소년들의 학업성적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모형에 있어서도 학업성적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변인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특성에 더욱 알맞은 설명모형의 개발이 있기를 바라며, 또한 그에 맞는 대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김준호(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에 대한 압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창간호**, pp. 113-148.

김준호, 노성호(1993). **학교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준호, 이성식(1996). 계층에 따른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 긴장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의 논쟁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4호**, pp. 97-120.

김희화(2001). 청소년의 초기비행과 지속적 비행에 대한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제8권 제1호**, pp. 143-162.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2007). 한국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한 종단분석: 심리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3권 제1호**, pp. 1-41.

이성식(2007). 청소년비행과 비공식낙인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pp. 1105-1128.

Agnew, R. (1985a). A revised strain theory of delinquency. *Social Forces, Vol. 64,* pp. 151-167.

Agnew, R. (1985b).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 longitudinal analysis. *Criminology, Vol. 23,* pp. 47-61.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Vol. 30,* pp. 47-87.

Akers, R.L. (1977).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Belmont, CA: Wadsworth.

Felson, R.B. and Staff, J. (2006). Explaining the academic performance-delinquency relationship. *Criminology, Vol. 44 No. 2*, pp. 299-319.

Gottfredson, M.R. and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Grasmick, H.G., Tittle, C.R., Burski, R.J. and Arneklev, B.K. (1993). Tes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0,* pp. 5-29.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Free Press.

Johnson, R.E. (1979).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origi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Krohn, M.D. and Massey, J.L. (1980). Social control and delinquent behavior: An examination of the elements of the social bond. *Sociological Quarterly, Vol. 21,* pp. 529-543.

LaGrange, R.L. and White, H.R. (1985). Age differences in delinquency: A test of theory. *Criminology, Vol. 23,* pp. 19-45.

Massey, J.L. and Krohn, M.D. (1986).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n integrated social process model of deviant behavior. *Social Forces, Vol. 65,* pp. 106-134.

Matsueda, R.L. (1982).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s: A causal modeling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7,* pp. 489-504.

Matsueda, R.L. (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ting a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7,* pp. 1577-1611.

McGloin, T.M., Pratt, T.C., and Maahs, T. (2004). Rethinking the IQ-delinquency relationship: A longitudinal analysis of multiple theoretical models. *Justice Quarterly, Vol. 21 No. 3,* pp. 603-635.

Offord, D.R., Poushinsky, M.F. and Sullivan, K. (1978). School Performance, IQ, and delinquenc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18,* pp. 110-127.

Paternoster, R. and Iovanni, L. (1989). The labeling perspective and delinquency: An elaboration of the theory and assessment of the evidence. *Justice Quarterly, Vol. 6*, pp. 359-94.

Polk, K. and Schafer, W. (1972). *Schools and delinquency.*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Simons, R.L., Johnson, C., Conger, R.D. and Elder, G. (1998). A test of latent trait versus life-course perspectives on the atability of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Criminology, Vol. 36,* pp. 217-43.

Sutherland, E.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delphia: Lippincott.

War, M. and Stafford, M. (1991).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s: What they think or what they do? *Criminology, Vol. 29,* pp. 851-866.

Wiatrowski, M.D., Griswold, D.B. and Roberts, M.K. (1981).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6,* pp. 525-41.

Wright, B.R., Capsi, A. and Silva, P.A. (1999). Low self-control, social bonds, and crime: Social causation, social selection, or both? *Criminology, Vol. 37,* pp. 479-514.

ABSTRACT

GPA and Delinquency : Testing Theories of Delinquency through Panel Data

Lee, Seong-Sik* · Jun, Shin-Hyun**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GPA scores and delinquency. This study tests several major theories of delinquency. According to strain theory, a low GPA score has an effect on delinquency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negative emotions. However, according to social control and general theory, the relationship between GPA scores and delinquency is spurious and social bonding variables or low self-control have important effects on both GPA and delinquency. According to differential association/social learning theory, GPA score has an indirect effect on delinquency through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In addition, according to labeling theory, its effect is also indirect through the negative labeling process. Using data from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this study tests several hypotheses. Results show that GPA scores have a direct effect on delinquency and the effect of GPA scores on delinquency is also indirect through association with delinquency and the perceived labeling. The results indicate that those who have low social bonds and self-control have lower GPA scores and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delinquency by associating with delinquent peers or being on the receiving end of negative labeling. These findings are inconsistent with both social control and general theory, but support differential association/social learning and labeling theor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GPA score, delinquency, panel data

투고일 : 1월 12일, 심사일 : 4월 17일, 심사완료일 : 5월 11일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Youth Studies, Korea Digital University